

한국계 獨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피셔 내한

“K-팝·불고기 즐겨... 한국적 정서 좋아요”

“아이돌그룹 노래부터 발라드 곡까지 K-팝을 즐겨 들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에도 관심이 많은데 ‘시크릿 가든’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독일의 유명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피셔가 아시아 순회공연 도중 한국을

찾았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피셔는 13살 때 독일 대통령관저에서 연주한 ‘음악 신동’ 출신이다. 25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



터에서 만나 얘기해보니 한국에 대한 지식이 가히 수준급이다.

“어머니가 한국음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불고기, 김치, 김밥, 떡을 좋아합니다. 서울에 오면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을

“한국인 어머니덕에 음식 익숙

영화·드라마 관심... 출연 욕심도”

즐거워요. 이번에도 7시간 동안 예쁜 재킷과 치마, 구두를 찾아 해맸죠. 한국음악이요? 음~, 민요 ‘아리랑’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잘 압니다. 저는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 살며 드라마에도 출연해보고 싶어요.”(웃음)

피셔는 2009년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곡을 연주한 음반을 냈다. 스스

로 ‘리스트 계보’라고 규정할 만큼 리스트에 푹 빠져 있다. 그에게 리스트 음악의 매력은 무엇일까.

“리스트 곡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어려운 테크닉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이죠.”

이날 저녁 국제교류재단 갤러리에서 열린 독주회에서 피셔는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을 열정적으로 연주했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한 강원도 철원에서 음악회를 가졌다. 피셔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돼 서로 대치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제가 태어난 독일도 한때 분단국가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상황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 평양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 김태훈 기자